

전주시 민간보조금 관리 깐깐해진다

심의위 개최 성과평가지표 확정

전주시의 민간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깐깐해진다.

전주시는 10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전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를 열고 투명한 민간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전주시가 시정 100대 핵심과제로 민간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

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민간보조금 지원계획 조기 확정을 위해 마련됐다.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공모기간 변경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적용강화 ▲부서 사업심사 강화 ▲위원회 심사방법 변경 ▲보조금 심의 시 사업설명 주체 변경 ▲성과평가 강화 등이다.

특히 성과평가를 이듬해 보조금심의 시 반영할 계획이며,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보조금 심의 신청 민간단체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설명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방적인 지원과 삭감이 아닌 공정하게 보조금을 집행·관리하고 시정목표를 함께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주시는 2017년도 민간보조금 지원계획과 성과평가 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각 부서별로 단체 설명회를 갖고,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상생 협력하는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구상이다.

권혁남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장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반드시 목적에 맞는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외부전문가 1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련조례 심의, 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심의 등 보조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성과평가까지의 역할을 맡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풍남문 역사문화거리 조성

객사까지 500m 골목차도 보행자 중심으로

전주시가 구도심 풍남문 골목차도를 보행자들이 걷기 편한 '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한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에서 객사(풍패지관)에 이르는 500여m의 골목길을 보행 중심의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내년까지 국비 22억원 등 총 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며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풍남문에서 완산경찰서까지 220m 구간에 대해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도로를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가로환경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불편받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현재의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줄여 일반보행으로 조정하고, 양측에 보도 턱이 없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K-리그 개막경기 대비 현장점검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국·과장 등 20여 명이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2016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소통과 주차, 청차 등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전주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인건비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전주시가 지역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경영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1인당 월 200만원 한도이며, 연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의 80%, 70%를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80%, 70%, 50%를 3년 동안 차등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전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은 뒤 다음달 중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 기업에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가온교육 등 4개 기업을 지원, 이들 기업은 교육,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사회적기업은 '뺨을 팔기 위해 고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뺨을 파는 기업'이라며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초기에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지인 집 침입 폭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8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0일 지인의 집에 침입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3시에 전주시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알게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에게 기본 나쁘게 말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에도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외제차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2명 '덜미'

외제차를 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0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6)씨와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39분께 익산시 신동도로변에 지인에게 빌린 아우디 차량을 주차해 놓고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충돌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제차량은 사고가 날 경우 자차 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나온다는 점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기자

공동 통학구 어울림학교 '성과'

도교육청 32곳 분석... 학생 증가·통학차량 배치 효과 작은 학교도 살리고 학생도 좋고 교육 질도 높고 '1석3조'

대규모·소규모 학교를 같은 통학구로 묶는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가 학생 수 분산은 물론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10일 발표한 '전북 읍면지역 32개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의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년대비 총 147명의 학생이 증가했다.

분석 기준을 2013년으로 할 경우 증가한 학생 수는 3백여 명이 넘는다.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는 농촌지역의 대규모학교를 각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로 전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고창초등학교는 농촌학교에 어울리지 않게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로 이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고 시청각실 등 여유 공간이 없었다.

반면 고창군 면 지역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고창초 학생 30명을 공동통학구인 가평초와 대야초, 봉암초, 신림초, 아산초 등 5개 학교로 전·입학했다.

이에 가평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명으로 전년대비 15명이 늘었고, 아산초등학교도 7명이 늘었다.

학생을 다소 늘어난 해당 학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통학차량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 가평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자전거를 지급, 수시로 자전거 생태체험

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주일에 1회씩 고창읍내 수영장을 찾는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3~6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배우고 있다.

지난 2월 2명이 졸업했는데 11명이 신입생으로 새로 들어와 학생 수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 정우초등학교는 정원 때문에 더 이상 전입학생을 받지 못함 정도로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다.

전교생이 970여명에 달해 정읍 내에서 대표적인 대규모 학교인 한솔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로 지정된 이 학교는 인라인 스케이트 활동, 수영교실, 특색 있는 진로체험활동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우초등학교는 2013년 공동통학구 지정 이후 지난해 학생 수가 20명이 더 늘어 전교생이 76명이다.

중간놀이시간에 세계 민속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수학여행도 테마형으로 경기도 영여 체험마을을 찾는다.

전용석 교감은 "올해 신입생 12명 중 한솔초 통학구의 학생 4명이 입학했다. 45인승 통학차량 좌석의 여유가 없어 더 이상 전입학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읍 단위 대규모 학교와 면 소재 소규모 학교를 공동통학구로 지정하는 정책의 작은 학교 살리기 효과가 입증됐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농어촌학교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당 설치 강이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퍼런스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